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시상식 시상복, 시상용품 제작 발표회'가 열리고 있다.

모습 드러낸 평창 시상패션

'아름답고 따뜻하여라'

시상대, 기와 지붕에 흰눈이 내려앉은 순백색
시상 도우미 의상, 태극기의 청색과 홍색 차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 영광의 순간을 함께 할 시상대 등 시상용품이 모습을 드러냈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는 27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내외 미디어에 동계 올림픽·패럴림픽 시상대와 시상요원 의상, 시상 트레이, 시상품, 시상 음악 등을 공개했다.

평창 올림픽 103회, 패럴림픽은 80회에 걸쳐 시상식이 열린다.

남자아이스하키 금·은메달과 동메달 시상식은 별도로 열린다.

동계올림픽 특성상 추운 날씨 때문에 경기장에서는 메달리스트들에게 시상품만 전달하는 '베뉴(경기장) 세리머니만 진행한다.

다음날 평창 올림픽플라자의 메달플라자에서 직접 메달을 주는 '빅토리 세리머니'를 마련한다.

시상용품의 디자인에는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을 융복합해 대한민국의 정서와 아름다움, 정을 세계인들에게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메달 시상식은 한국의 정서를 담은 프로그램으로 평창대회만의 독창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뒀다.

시상대에는 전통 건축 양식인 기와 지붕과 단청, 그리고 지붕에 내려앉은 눈을 연상시키는 순백색을 적용했다. 무게, 이동, 설치 편의성을 고려했다. 패럴림픽을 위해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슬로프를 따로 설치했다.

시상대는 나무 재질에 우레탄 방수 코팅을 했고, 선수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특수 패드도 설치될 예정이다.

시상대와 트레이를 디자인한 한경우씨는 "올림픽 정신과 가치를 예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아트워크 형태로 제작했다. 시상대는 한국 전통 건축 양식을 모티브로 한국 고유미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올림픽 베뉴 세리머니 시상품은 마스코트 '수호랑'과 조선 최다인 9번의 장원급제를 한 율곡(栗谷) 이이의 어사화에서 착안한 '어사화를 쓴 수호랑'이다. 메달리스트에게 최고의 예우를 표했다.

메달 시상식 시상품은 한글디자인과 평창의 산맥, 눈꽃의 만남을 나무와 금속으로 제작했다.

패럴림픽 메달리스트에게는 '어사화를 쓴 반다비'를 수여한다.

시상 트레이에도 시상대의 전통 가옥 모티브를 반영, 일체감을 유지했다.

시상음악은 경쟁을 마치고 수상을 기다리는 선수의 기쁨과 설레임을 감안했고, 올림픽 시상식에 걸맞는 웅장함도 더했다. 한국 고유의 타악기와 서양의 오케스트라가 어우러지는 작곡으로 감동과 함께 신명나는 축전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시상요원의 의상은 올림픽 정신과 한국의 정체성, 평창의 추위를 고려해 디자인했다. 태극기의 청색과 홍색을 차용해 정체성을 표현했고, 올림픽 룩 디자인을 반영한 눈꽃문양, 한글 룩 디자인을 가미했다.

전통 겨울의복인 두루마기와 동방, 장신구인 풍차, 토시, 짓목도리 등을 활용했다.

겨울 의복에 사용되는 누비나 패딩 기법으로 보온성도 확보했다. 모자의 풍차 장식은 작가 오화진씨와 협업해 전통의 현대화를 꾀했다. 시상복은 설상 베뉴, 빙상 베뉴, 남녀 시상복을 구분해 모두 4종을 제작한다.

시상복을 디자인한 홍익대 금기수 교수는 "올림픽 정신과 한국의 절제된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평창의 추운 날씨에 시상식 도우미들이 춥지 않도록 보온성에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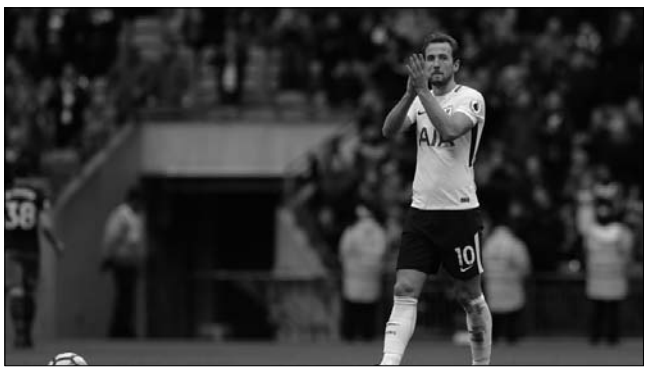
메달 시상식이 열리는 메달 플라자에서는 매일 밤 시상식뿐 아니라 일반 선수와 선수가족, 관중을 위해 다양한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강원도 문화공연과 넌버벌 퍼포먼스, 치어리딩, 군악대 공연, K팝 콘서트, 드론·불꽃쇼 등이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새롭게 재해석해 시각화하는 것은 물론, 평창만의 새로운 시상식 연출을 통해 선수는 물론 관람객들에게도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을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한국의 아름다움과 멋을 자연스럽게 전 세계에 보여 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포체티노 감독 "케인 능가하는 축구선수 있나"…경기당 1.06골



케인은 26일 밤(한국시간)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2018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사우샘프턴전에서 세 골을 몰아치며 5-2 승리를 이끌었다.

토트넘 핫스퍼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해리 케인만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그라운드에 나서기만 하면 골로 반응하니 그럴 만도 하다.

케인은 26일 밤(한국시간)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2018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사우샘프턴전에서 세 골을 몰아치며 5-2 승리를 이끌었다.

24일 번리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케인은 2017년에만 39차례나 골망을 흔들며 1995년 앨런 시어러(은퇴)의 EPL 한 해 최다골(36골) 기록을 넘어섰다.

토트넘의 모든 공식 경기와 대표팀 득점을 포함하면 2017년 총 득점은 56골(52경기)로 늘어난다. 경기당 1.06골 수준으로 유럽 주요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도 올해만큼은 케인에 미치지 못했다.

케인은 "매우 자랑스럽다. 메시와 호날두는 오랜 기간 축구를 주도한 최고의 선수들이다.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포체티노 감독은 "케인은 월드 클래스 선수다. 그 포지션에서 케인은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다. 누가 그보다 뛰어난가"라고 극찬했다.

"케인은 오늘 자신이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정신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비결은 매일 열심히 하는 것"이라며 케인의 성실성도 특기했다.

EPL 한 해 최다골 기록을 내준 시어러는 트위터에 "당신(케인)은 정말 멋진 2017년을 보냈다. 연간 EPL 골 기록을 갈아치울 자격이 있는 선수다. 앞으로 활약도 기대된다"고 진심을 담아 축하했다.

/뉴시스

미쓰에이, 7년 만에 공식 해체

걸그룹 '미쓰에이'(miss A)가 7년 만에 공식 해체됐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27일 "소속 걸그룹 미쓰에이가 해체됐다"고 밝혔다.

미쓰에이 네 멤버 중 페이는 지난해 5월, 수지는 올해 8월 JYP와 재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전속 계약이 만료된 지아가 재계약을 맺지 않고 팀을 떠났고, 민 역시 올해 4월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팀 해체는 예고된 바 있다.

2010년 7월 가요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미쓰에이는 데뷔곡 '배드 걸 굿걸'로 같은 해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에서 신인으로서는 파격적으로 대상 격인 올해의 노래상과 여자 신인상을 받았다. 이후 발표하는 곡마다 인기를 누렸다.

이에 따라 미쓰에이 역시 아이돌 그룹 '7년차 징크스'를 피하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 따라 가수들이 소속사와 계약을 맺을 때 최장 기간이 7년인데, 이로 인해 재계약 시점에 아이돌 그룹이 와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4인 걸그룹 '씨스타' 역시 데뷔 7년만인 올해 해체를 결정했다.

/뉴시스

제32회 골든디스크… 윤종신·아이유·트와이스 등 출연 확정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제32회 골든디스크 시상식 출연을 확정지었다.

26일 골든디스크 사무국은 "윤종신·아이유·트와이스·워너원이 내년 1월10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5홀에서 열리는 제32회 골든디스크 시상식 디지털 음원 부문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디지털 음원 부문 후보로, 이 중 워너원은 신인상 후보이기도 하다.

데뷔 후 처음 골든디스크 무대에 서는 윤종신은 올 해 '좋니'에 이어 월간 윤종신 11월호이자 '좋아'까지 연속 히트를 쳤다. 이별의 감성을 남녀의 입장에서 각각 솔직하게 풀어내 공감을 샀다.

2010년 '잔소리'로 본상을 받은 아이유는 8년 만에 골든 무대에 오른다. 아이유는 '밤편지'로 골든디스크 본상 후보에 노미네이트됐다.

트와이스는 3년 연속 골든을 찾는다. 데뷔곡 '우아하게'부터 '치어업(CHEER UP)', 'TT', '낙낙(KNOCK KNOCK)', '시그널', '라이키(LIKEY)'에 이어 최근 곡 '하트셰이커'까지 7번 연속 히트송을 낸 트와이스가 '낙낙'으로 골든 무대에 오른다.

'괴물 신인' 워너원도 골든에 첫 입성한다. 워너원은 신인상 부문과 디지털 음원 부문 후보다.

신인 후보 중에 음원까지 동시 후보인 건 워너원과 우원재 뿐이다.

골든디스크는 1986년 첫 개최 후 국내 최고 권위의 가요 시상식으로 자리매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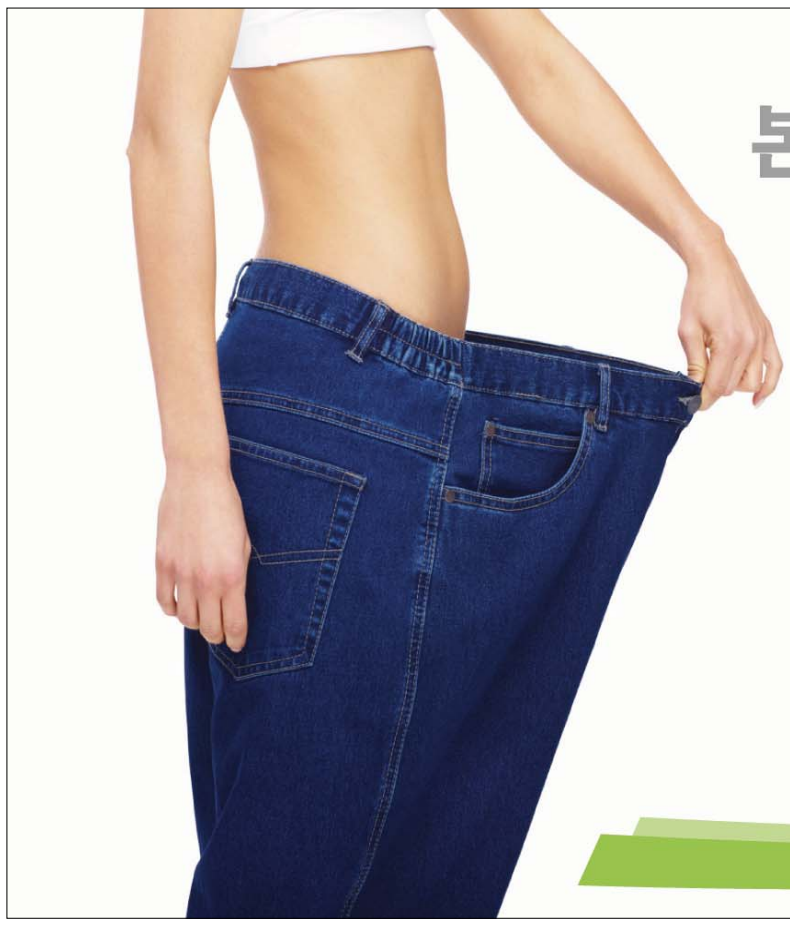
부문별 후보는 골든디스크 시상식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32회 골든디스크 시상식은 내년 1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열린다.

10일 오후 5시에 디지털 음원 부문이, 11일 오후 5시에 음반 부문 시상식이 진행된다.

장소는 일산 킨텍스 제1 전시관 5홀이다. 약 6000석 규모에서 와이드한 무대 구성과 연출을 선보일 예정이다.

/뉴시스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